

주임신부: 김대하 (요한 사도)
본당회장: 권병학 (요한 사도)
TEL: (905) 545-3004
FAX: (905) 545-7895

연중 시기

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.
(루카 12,40)

미사 시간	
미 사	주일 11 시 (본당)
	주일 17 시 30 분 (공소)
평 일	매주(화) 20 시
	매주(수) 11 시
	매월 첫(목) 19 시
성모 신심 미사 십자가의 길	매월 첫(토) 11 시
성시간	매월 첫(목) 19 시 미사 중
성사 일정	
고해성사	미사 전, 후
견진성사	2 년에 1 회
유아세례	매월 마지막 주일
혼인성사	6 개월 전 면담
병자성사	병환 중/임종 전
교리 시간	
예비자 교리	
견진 교리	
신심 단체	
자비의 모후 Cu	매월 2 주 미사 후
셋별 Pr.	매주 주일 9 시 30 분
평화의 모후 Pr.	매주 화요일 18 시 30 분
천상의 어머니 Pr.	매주 수요일 9 시 30 분
사도들의 모후 Pr.	매주 화요일 18 시 30 분
사랑하을 어머니 Pr.	매주 화요일 18 시 30 분
바뇌 성모 기도회	매월 1,3 주(토) 10 시
울뜨레야	매월 1 주(목) 성시간 후

ONE HEART, ONE SOUL

A Campaign for the Diocese of Hamilton

총 약정 목표액: \$110,000
실질 약정액: \$86,409, 적립금액(\$78,714)

본당 소식

◎ 전례 안내
▶ 2/15(일) 설 합동 위령미사 (본당 11:00, 공소 17:30)
▶ 2/17(화) 연중 제 6 주간 화요일 미사 (20:00)
▶ 2/18(수) 재의 수요일 미사 (19:30)
▶ 2/22(일) 사순 제 1 주일 미사 (본당 11:00, 공소 17:30)

◎ 재의 수요일 미사 안내
사순시기를 시작하는 재의 수요일 미사가 18일(19:30)에 있습니다.
미사 중 머리에 재를 엮는 예식이 거행됩니다.

◎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(매주 금요일 19:30)
이번주(20일)부터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이 시작됩니다.
많은 참여 바랍니다.
2/20 독서해설단
(해설: 신부님, 십자가 복사: 임연신, 초복사: 하유선, 권희진)
2/27 사목회 3/6 꾸리아/바뇌 기도회
3/13 울뜨레야 3/20 주일학교 자모회/성가대
3/27 복사단 4/3 구역장
* 각 단체는 해설, 십자가 복사 1명, 초복사 2명과 십자가의 길 내용을 재의 수요일 전까지 전례분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◎ 사순시기 복음 필사
사순시기 동안 그날의 복음을 필사하여 구역장에게 제출합니다.
주님 부활 대축일(파스카 성야)에 구역별로 봉헌할 예정입니다.

◎ 나의 수호 성인 이야기
오늘 수호성인 이야기는 <성녀 수산나>입니다.
다음주는 <성녀 스텔라>입니다.

◎ 환영합니다
정주현, 이우석, 이로하 가족(5 구역)

단체소식

◎ 동유럽 성지순례 온라인 설명회
오늘(15 일), 온라인(Teams Meeting)으로 하는 성지순례 설명회가 있습니다. 순례참가자들은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시간: 오후 1 시 * 장소: 성전

◎ 꽃동네 1 박 2 일 사순피정
* 강사: 신상현 야고보 수사님(예수의 꽃동네 형제회)
* 일시: 2/21(토) 오전 9 시~2/22(일)오후 3 시
* 접수비: \$250 (선착순 35 명)
* 마감: 오늘 2/15
* 문의: 이상은 엘리사벳 289-933-0242

◎ 가톨릭성서모임 <창세기/탈출기/마르코/요한반 모집>
4~6 명그룹으로 매주 1 회 화상을 통해 나눔 진행.
* 창세기 반: 성경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
* 탈출기 반: 창세기 공부를 마친 분
* 마르코반: 창세기와 탈출기 공부를 마친 분
* 요한반: 창세기, 탈출기와 마르코 공부를 마친 분
* 접수 기간: 오늘 2/15
* 문의: 이상은 엘리사벳

공소 소식

◎ 설 합동 위령미사
미사 후 친교식사가 있습니다.
◎ 금일 성지가지 회수합니다.

친교식사 및 제대꽃

오늘 친교식사는 7 구역에서 '떡국'을 준비해 주셨습니다.
감사합니다.
3/1: 1 구역 3/8: 4 구역 3/15: 3 구역

구역 모임 소식

이달의 묵상 주제 (마태 4,1-11) ‘유혹’
1 구역: 2/28(토) 친교실 식사준비 후
2 구역: 2/21(토) 친교실 11:00
3 구역: 2/21(토) 친교실 12:00
4 구역: 2/21(토) 황창환 알비노 18:00
5 구역: 2/21(토) 하태성 베드로 18:00
7 구역: 2/28(토) 황미옥 레지나 17:30

새해를 맞이하며 바치는 기도

○ 시작이요 마침이신 주 예수님,
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.
● 저희가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
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
새해에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맡은 책임을 다하여
가정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소서.
○ 또한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께 바치오니
하느님의 영광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
열심히 일하도록 도와 주소서.
◎ 아멘.

삼종기도

○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
●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. (성모송)
○ "주님의 종이오니
●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!" (성모송)
○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
●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. (성모송)
○ 천주의 성모님,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시어
●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.
✚ 기도합시다.
하느님, 천사의 아람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
알았으니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
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 주소서.
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.
◎ 아멘.

우리들의 정성

지난 주 정성 (미사 참례자: 140 명)			
주일헌금	\$1,250	교무금	\$160
감사헌금		성전건립	\$15

신학생 양성기금 \$20

◎ 2 월 축일자 (10 명)
2/ 4 요안나(임성신)
2/ 5 아가다(주소연, 이금자)
2/ 8 요세피나 (박지나)
2/10 스콜라스티카(강영희)
2/16 아카페(오애선)
2/18 요한 프라 안젤리코(정이안)
2/26 이사벨라(이지민, 류혜진), 알렉산데르(이시훈)

전례봉사자

날짜	해설	복사	독서자	봉헌자
2/ 15	박규혜 카타리나	최다인 안나, 유세진 라파엘	1 독서: 김한욱 에릭 2 독서: 채정희 올리비아	김성수 베드로 이재순 데레사
2/ 22	권희진 요안나	이준규 안드레아, 최다희 보나	1 독서: 최아현 베로니카 2 독서: 최다혜 플로라	최다인 안나 이준우 바오로

깨어 있음

박근범 레오 신부
도시빈민사목 주임

매 순간 깨어 있음은 참된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. 우리는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며 사는지 자각하지 못하면 불행하게 됩니다. 깨어 있는 사람만이 제대로 살 수 있으며, 자기 분수를 헤아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. 또한 깨어 있다는 사실은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에 대해 알아차리는 것입니다.

기도가 목표하는 바는 궁극적으로 깨어 있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. 오늘 복음의 핵심 역시 '깨어 있어라'입니다. "너희는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 놓고 있어라."(루카 12,35) 늘 준비하고 깨어 있는 삶의 자세는 그리스도 신앙인이 지녀야 하는 덕목입니다. 깨어 있음은 언제나 새로움을 줍니다. 깨어 있음의 중심에는 주님께서 계십니다. 하느님의 현존은 깨어 있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. 모든 문제는 깨어 있지 못함에서 기인합니다.

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깨어 있는 이들이 살아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. 깨어 있지 않으면 쉽게 악의 유혹에 빠집니다. 막연하게 잠을

안 자고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,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고 작은 일에도 충실히 살아갈 때 비로소 깨어 있지 않을까요? "행복하여라,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 있는 종들!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. 그 주인은 띠를 매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,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.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, 그 종들은 행복하!"(루카 12,37-38) 깨어 기다리는 우리의 기도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현실이 얼마나 기쁘니까? 주님을 기다리는 깨어 있음의 행복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.

우리가 왜 깨어 있는 삶이 필요한지 제 2 독서 야고보 서간에서 뚜렷이 배울 수 있습니다. "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.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?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한 즐기 연기일 따름입니다."(야고 4,14)

올 한 해 하느님의 은총과 진리로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.



대 철 주 보

선포와 나눔의 해
2026 사목지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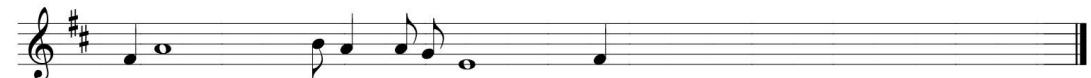
<http://cafe.daum.net/stpeteryu>

St. Peter Yu Catholic Church 6 Heath St. Hamilton ON L8H 3Y5



설 (2026. 2. 15.)

제 1 독서 민수기의 말씀입니다. 6,22-27
화답송 시편 90(89),2 와 4.5-6.12-13.14 와 16(◎17 ㄴ)



후렴.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.

- 산들이 솟기 전에, 땅이며 누리가 생기기 전에, 영원에서 영원까지 당신은 하느님이시옵니다.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, 한 토막 밤과도 같사옵니다. ◎
- 당신이 그들을 쓸어 내시니,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, 사라져 가는 풀과 같사옵니다. 아침에 돌아나 푸르렀다가,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. ◎
-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.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. 돌아오소서, 주님, 언제까지리이까?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. ◎

제 2 독서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. 4,13-15

복음 환호송 시편 145(144),2

◎ 알렐루야. ○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. ◎ 알렐루야.

복 음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12,35-40